

축 사

결실과 수확의 계절답게 풍요로운 하늘과 바람이 이곳 불영사를 반기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에 담긴 정성이야말로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연을 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성한 불영사에서 지혜와 자비의 음식인 사찰음식 문화향연과 향기로운 음악으로 산사를 감싸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환경과 생명, 건강의 가치가 매우 귀중한 이 시대에 사찰음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한 전통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찰음식은 건강만을 챙기는 음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성을 지향하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분히 훌륭한 음식이 있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의 마음임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유해 나가길 바랍니다.

복잡다단한 여건 속에서도 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의 우수성과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의 원력과 정진에 격려를 전합니다.

마음의 청명함까지 이루며 이미 5회째 뜻 깊은 행사를 많은 대중과 나누어 오신 일운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이 자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10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